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Raonatti 13batch, Philippines, Pangasinan team
SANTIAGO | JUAN | JUANA | CONCHITA

RaonAtti



목 차

> 덤프사이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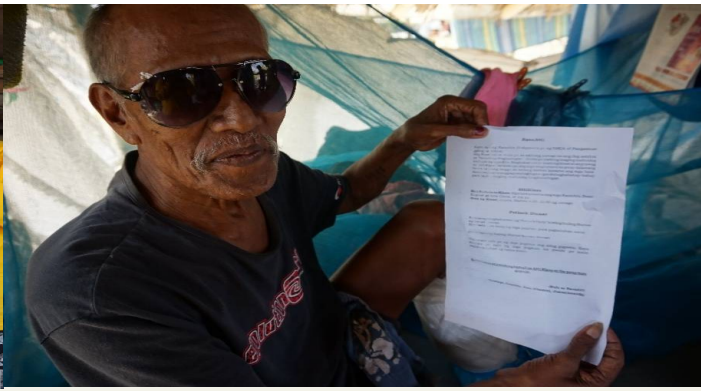
> 푸가조 이야기

> 살라핑가오 이야기

> 우리들의 이야기 - 홈스테이
- 개인소감

점프 사이트





HOUSE TO HOUSE

4개월간 아띠들은 지역주민들과 진솔하게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HOUSE TO HOUSE 활동을 4달간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거나 가족관계를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마을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주로 가졌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갈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역주민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활동 홍보

하우스 투 하우스를 통해 우리들의 활동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관계 이해하기

집집 마다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눈으로 확인 하였다. 미리 덤프사이트 가족에 대한 자료가 있었지만 우리팀 스스로 이름을 물어보며 지역주민들과 친해지며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이야기 하기

지역주민에게 우리를 알리자는 취지 하에 아띠 각자 가족사진과 우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현지어로 준비하여 지역주민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활동이었다



팟럭 파티(POTLUCK PARTY)

한 달에 한번 아띠들은 피딩 프로그램을 대신할 팟럭 파티를 계획 하였다. 각 집이 음식을 들고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형식으로 지역주민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자는 취지로 방향을 잡아 HOUSE TO HOUSE 활동을 하며 팟럭 파티의 취지를 설명 하였다.

하지만 아띠들의 **홍보부족**과 이미 지역주민들이 **피딩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피딩 프로그램처럼 진행되었다. 아띠들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팟럭 파티였지만 파티를 홍보하고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했고, 음식을 나누어 주며 말로 설명 못한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아띠들은 만족하고 있다.

- > 4월에는 한국 음식 불고기, 화채, 김밥
- > 5월에는 아도보 밥 화채
- > 6월에는 미노도, 메론주스, 샌드위치, 밥

종종 피딩프로그램도 했으며 오스갈도(닭죽), 샌드위치등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누었다.



아띠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아띠클라세를 진행하였다. 아띠들의 수업은 주로 미술수업과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어 수업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알파벳을 아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로 반을 나누어 활동 하였다. 클래스 내내 학습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춤과 노래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수업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몸 놀이를 하며 마무리를 하였다.

몸놀이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 몸 놀이를 하며 아이들과 관계형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수업 전후로 필리핀게임과 한국놀이를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놀며 친해졌다.

미술수업

아이들이 못해본 경험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자이크 수업과 페이스 페인팅을 하였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영어수업

영어 수업은 수준별로 분반 수업을 진행하였다. 주로 알파벳을 통하여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가졌고 아띠들 역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따갈로그 단어를 아이들을 통해 배웠다.

손씻기 활동

수업을 하기 전 위생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HAPPY BIRTHDAY 노래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손을 씻었다.



푸가조





푸가로는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 방문하여 활동했으며 주된 활동은 **그린하우스**를 하였다.

만남

푸가로에 대한 많은 회의와 계획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간 푸가로.
그린하우스를 진행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 바랑가이 홀 직원들, 등등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전 기수의 그린하우스의 장소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푸가로의 학교로 장소를 변경하게 된다.





학교

전 기수가 활동하고 있던 바랑가이 홀의 그린하우스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코디와 함께 회의를 하던 중 옆에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소 사용을 요청하였고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흔쾌히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학교에서 그린하우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전 기수의 그린하우스 재료들을 모두 재 사용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활동 그리고 어려움

그린하우스의 장소를 교장선생님과 코디들과 함께 회의 끝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였다.

처음 선정한 장소가 우기시즌에 잠긴다고 하여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로 쓰레기 문제

우리가 진행하는 땅 밑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다. 많은 시간을 쓰레기 제거하는데 쓰였고, 모든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와 어느정도 제거하고 땅을 파낸 뒤 새로운 좋은 흙을 쌓아 짓기로 결론짓고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라운아띠, 코디, y패밀리, 학교 선생님, 학교 학생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활동의 마무리 그리고 한계점

4개월의 회의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그린하우스를 완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팀원들 그리고 코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기대를 했던 그린하우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린하우스의 활동을 마치고 우리는 홈스테이를 시작 하였고, 홈스테이 기간에 큰우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우기를 처음으로 겪어본 우리는 그린하우스가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는 물에 잠겨 그린하우스의 80%이상이 망가져있었다.

뒤늦게 걱정하지 않았던 계절에 대한 한계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안을 고민해보며 돌아오게 되었다.

PUGARO INTEGRATED SCHOOL

NATIONAL SCHOOL DEWORMING DAY

OPLAN:
GOODBYE BULATE

July 29, 2015

Para maging malusog at masigla ang inyong mga anak.

Makilala sa sama-sama at sabayang pagpupurga sa lahat ng estudyante mula Kinder to Grade 6 sa mga pampublikong paaralan.

DepED

PAALABAN PAGBABAGO, LUMI-BERBISYO! Maglutasin po kayo!

Child-Friendly
Smoke free
Drug free
School



살라핑가오

PAALALA,
TUWING ARAW NG
BES ANG HAKOT NG BANGKAY
DITO!!!
BAY
BAGS. COM



살라핑가오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활동지로 일주일에 두 번 활동일정에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이 일정이 변경된 활동지였다.

고민

새롭게 생긴 활동지인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다. 3월 한 달을 활동계획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살라핑가오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활동으로 추천해 준 것으로 SALAPINGAO ELEMENTARY SCHOOL에 **Canteen**을(구내식당) 새롭게 리모델링해주는 것과 **아띠클라세**, 그리고 마을 공간에 **그린하우스**를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띠들은 추천해준 활동들 대신에 청년들과의 만남을 계획했고 4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알아가기

서로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팅팅탱탱'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이름을 외우며 서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유대감을 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아띠들은 작은 체육대회로 배구, 2인3각 등 간단한 게임과 운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을 둘러보기

3번째 만남부터 함께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첫 활동지인 만큼 이 마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키고 싶은 모습, 개선하고 싶은 모습을 찾는 '마을 알기 활동'을 함께 하였다.

쓰레기 줍기

'마을 알기 활동' 결과 쓰레기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으며 마을 곳곳을 다니며 청년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웠다.



350 PPM 캠페인





> 350PPM이 무엇인지
> 작은 실천 약속받기

350 PPM Campaign

RaonAtti



우리들의 이야기



TIAGO의 가족소개

다니카

집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귀염둥이 여동생. 엄마 아빠와 자주 싸우긴 하지만 집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분위기 메이커

나나이 하지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아버지를 휘어잡는 포스를 지니심

싸리싸리를 운영하시면서 항상 나에게 간식을 챙겨주시는 따뜻한 어머니

하리스 (집안의 둘째)

박이오 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동생? 일이 바빠 많이 보진 못했지만 집안의 든든한 아버지의 지원군.

따따이 다니

집안의 기둥 아버지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가슴 따뜻한 아버지 그의 카리스마란..

도글라스

얌얌

아떼 하이드

광광가에서 일을 하시는 첫째 누나! 시크함 속에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는 재미 있는 누나. 비록 많이 보진 못했지만 아버지 못지 않은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집안 의 첫째



Tiago의 홈스테이 이야기

3주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사랑 받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살아 보는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

항상 부족한 산차고를 챙겨주던 따따이.

그와 많은 것을 나누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눈빛과 행동에서 나는 사랑 받고 있음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나의 배고픔을 걱정하시던 나나이

그녀와 역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정말 배고픈 산차고를 아들처럼 챙겨주셨다. 나나이가 해주던 각종아도보(포크,치킨,개구리)등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무니

나를 놀아 주던 다니카

친근한 오빠가 아니어서 미안했지만, 나와 시간을 가장 많이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니칸의 기타실력과 항상 타주던 커피를 난 잊지 못할 것이다. 고마워 니칸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을 느낄 때 아버지 어무니, 가족이 보여주신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의 순수하고 대가 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난 내 필리핀 가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홈스테이 패밀리 감사합니다 사랑해유~~

JUAN 의 홈스테이



어머니 (Susing villegas) - 항상 따듯하게 ~ 밥먹어~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따듯한 어머니. 해 드린게 없어 미안한 감정이 크다.

아버지 (Carlos villegas) -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아버지와 많이 닮았고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셨던 아버지.

두분은 타운에서 간틴을 운영중이시다.

매주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오시고 평일은 주로 간틴에서 일하고 주무신다.

항상.. 간틴에 가면 맛있는 밥과 간식을 주시며 편하게 해주신다~벌써 그립다.



꾸야 Ernan pecato - 시크하지만 따뜻한.

(사진을 마지막날 못찍고 출근하심. 진짜 잘 생기고 근육질.)

아떼 Carolyn pecato - 항상 맛있는 밥을 챙겨주시고 나의 모든 생활을 함께 한 .

여동생 Erica katrise pecato - 만난지 하루만에 친해진 .. 하지만 서로 애증관계 진짜 친동생같은 마음을 주고 받은 나의 동생 까뜨레

남동생 Ern carlo pecato - 약 10개월 우리 집의 사랑을 듬뿍.. 요즘은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기염둥이~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깃단에서 거주하셔서 어머니 딸 분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두 집이 붙어 있어서 항상 하루에 한끼 정도는 옆 딸집에서 밥을 먹곤 했다. 홈스테이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잤던 이 집!!

아떼 Melda - 항상 배고프지는 않은지 걱정 해주시며 챙겨주신 아떼, 홈스테이 마지막날 아기가 세상으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꾸야 Larry -타운에 나가고 싶을 때 그리고 마을을 둘러보고 싶을 때 자주 함께 했던 꾸야. 손재주가 뛰어나시고 (오토바이, 새장, 등등 자주 만들고 고치심.) 활발하셔서 나의 홈스테이가 더욱 재미있었던 ..

여동생 Lhaarmie Villegas Pimentel -처음에 도도해서 친해지기 어려웠던 동생,하지만 친해진 뒤로는 부족한 영어이지만 깊은 이야기도 서로의 나라를 공유하기도 했던 동생 ~ 춤도 노래도 잘 하는 동생 ~ggg



우아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Sta.cruz





사랑하는 나나이. 타타이. 꾸야리취. 꾸야란디. 동생이사벨
그리고 산타크루즈 마을 주민분들. 팀원들. 김. 롤리 .y친구들
감사합니다 ♡



Sta.cruz



콘치타의 홈스테이

☆ 우리 가족소개

나나이 토라

이 집에 대장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싸리싸리로 부업도 하시는 등 만능살림꾼이신 마마. 언제나 마마가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되셔서 나와 가장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다.

타타이 부다

무뚝뚝한 것 같지만 마음이 느껴지고, 매일 말 관리에 논농사관리에 항상 매일 매일이 바쁘신 파파. 술과 담배를 너무 사랑하시는 파파 고혈압이라고 술 안드신다고 하셨지만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으신가보다.

여동생 안젤리카

다다이라는 닉네임으로 항상 불렀고, 쑥스러워 하고 말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오토바이에 트라이시클에 운전을 정말 잘하는 동생이다.

남동생 AJ

개구쟁이이자 쑥스럽쟁이. 누구보다 가장 몸놀이를 좋아하고 어부바를 매일 해달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그림 그리고 색칠하기를 좋아하고, 레인샤워와 설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다.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정말 많은 가족들을 만났다.
이웃인가 하면 이렇게 저렇게 건너 건너 대부분 친척 관계로 한 마을에 모두 모여 산다.

눈에 방해되는 것이 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다.
비내리는 소리, 새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내 앞에 소가 말이 닭이 개가 고양이가 지나다니고
밤이 되면 수없이 내릴 듯한 별들이 밝은 달이 보이고
자연이 주는 이 평화로움도 정말 많이 만끽하고 왔다.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처음으로 진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제 2의 가족이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던 마마
가족이 그리워질 때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언제나 밥은 먹었는지 밥 더 먹으라며 라이스를 외치시던 파파, 언제나 어디 불편하지 않을까 챙겨주시고 맛있는 밥을 해주셨던 마마, 맨날 빠졌다 풀렸다 하지만 어부바 한 번이면 쉽게 녹는 장난꾸러기 에이제이, 많이 이야기를 추억을 만들지 못했지만 펌프에서 같이 씻으러 가서 쑥스러워 나 먼저 씻으라고 펌프질해주던 다다이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놀던 많은 아이들, 이웃 겸 친척인 모든 어른들까지 너무나 나에게 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MARAMING SALAMAT PO~

개인소감





MARAMING
SALAMAT PO!

